

▶ 내신 기출 국어, 지학사-상편 ◀

1. 문학 속으로

- (1) 동짓달 기나긴 밤을 (35문제)-----1쪽
- (2) 봄.봄 (47문제)-----12쪽
- (3) 이옥설 (39문제)-----42쪽
- (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46문제)-----57쪽

2. 말과 글의 힘

- (1) 한국의 정체성 (34문제)-----84쪽
- (2)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관한 토론 (40문제)-----101쪽

3. 삶에서 책을 찾다

- 너를 기다리는 동안 (30문제)-----123쪽

4. 국어의 규범과 변화

- (1) 음운 변동 (66문제)-----137쪽
- 한글 맞춤법 (69문제)-----156쪽
- (2) 국어의 역사성 (61문제)-----180쪽

5. 나, 너, 우리의 말과 글

- (1)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32문제)-----199쪽

▶ 빠른 전체 정답-----217쪽

▶ 해설-----220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동짓달 기나긴 밤을” 평리 분석

◆핵심 정리

갈래	, 고시조, 단시조
성격	감상적, 낭만적, 연정적
어조	그리움을 담은 여성적 어조
제재	밤
주제	임에 대한 사랑과 애뜻한 그리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함. 음성 상징어(의태어)를 통해 우리말의 묘미를 적절하게 살림.

• 구성

해당 부분	중심 내용
초장(1행)	임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
중장(2행)	임과 함께 보내는 밤(봄밤, 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은 바람
종장(3행)	임이 돌아와 함께할 시간을 간절히 기다림.

• 시상 전개

초장	동짓달 기나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냄. ▶ 외로움, 임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
중장	베어 낸 동짓달 긴 밤의 시간을 춘풍 이불 아래에 넣어 둠. ▶ 임과 함께 보내는 밤을 더 연장하고 싶은 바람
종장	정든 임이 오신 날 밤에, 보관해 두었던 시간을 꺼내어 이어 붙임으로써 임과 오랫동안 함께 지냄. ▶ 임이 돌아와 함께할

• ‘밤’의 양면성과 시적 화자의 정서 대비

동지(冬至)스물 기나긴 밤	어른 님 오신 날 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이 부재하는 현실 부정적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이 돌아와 함께 정을 나누는 때 긍정적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가움 외로움, 고독함 길게느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함 애정, 사랑 짧게 느껴짐.

•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동지(冬至)스물 기나긴 밤	자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넣어 둠.	‘서리서리 너털다가’
	펼	‘구뵈구뵈 퍼리라’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함.

임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남.

• 표현상 특징

화자의 적극적 태도	임과의 이별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동짓달 긴 밤의 ‘한 허리를 버혀 내어’ 다시 임을 만나는 날에 이어 붙이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줌.
유음을 활용한 운율감 형성	‘동지스물’, ‘밤을’, ‘허리를’, ‘니불’, ‘서리서리’, ‘어른 님’, ‘오신 날’, ‘퍼리라’ 등에서 유음 ㄹ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운율감이 느껴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림.	‘서리서리’, ‘구뵈구뵈’와 같은 의태어(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노래함.

• 감각적 심상이 드러난 시어

춘풍(春風) 님불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촉각적 심상
-----------	--------------	--------

• 시조의 특징과 ‘동짓달 기나긴 밤을’의 비교

시조의 특징	‘동짓달 기나긴 밤을’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총 6구로 구성됨.	[초장의 예] 동지(冬至)스물 / 기나긴 밤을 1구 한 허리를 / 버혀 내어 2구
3·4 / 4·4 조의 음수율	[초장의 예] 동지(冬至)스물 기나긴 밤을 3 5(4) 한 허리를 버혀 내어 4(3) 4
4 음보율	[초장의 예] 동지(冬至)스물 / 기나긴 밤을 / 한 허리를 / 버혀 내어

• 대조적 이미지의 활용

동짓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 • 임의 부재로 인해 밤이 더 길게 느껴지는 외로움의 시간임.
춘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함의 이미지 • 임과의 재회를 준비하는 화자의 마음이 반영된 시간임.
서리서리 너 헛다가	임과의 재회를 준비하는 화자의 애뜻하고 간절 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음.
구뿔구뿔 퍼리라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과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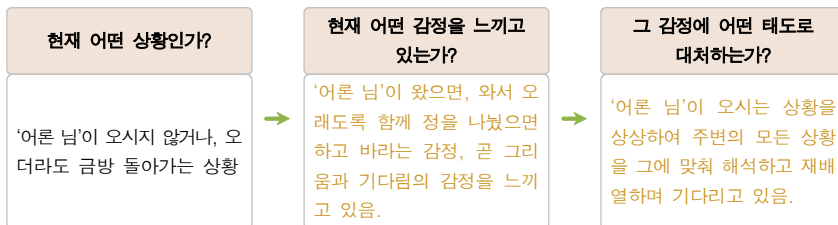
“동짓달 기나긴 밤을” 교과서 문제

1. 다음 표현이 주는 효과를 말해 보자.

- 서리서리 너헛다가
- 구뿔구뿔 퍼리라.

→ ‘서리서리’와 ‘구뿔구뿔’의 반복 표현, ‘널다’와 ‘퍼다’의 의미상 대립, ‘기나긴 밤’을 마음대로 넣고 편다는 상상력 등이 어우러져 의미와 소리 양면에서 리듬감을 자아낸다.

2. 이 시조의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상상해 보자.



3. 이 시조가 어떠한 발상으로 주제를 형상화했는지 정리하고, 그러한 발상의 특징과 효과를 말해 보자.



- 발상의 특징: 비물질적 대상인 시간을 마치 물질인 것처럼 베어 내고, 갈무리해 뒀다가, 다시 펼쳐 낸다고 표현하였다.
- 발상의 효과: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 냄으로써 임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강조하였다.

4. 동짓달 기나긴 밤을과 「저녁에」의 형식과 표현을 비교해 보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저녁에
연과 행	3장 6구 형식	3행, 또는 4행의 3연 구조
운율	4음보의 정형률	2음보와 3음보가 교차하는 자유율
표현 방법	비물질의 물질화를 통해 정서를 선명하게 표현	대비와 대구 등을 통해 철학적 주제를 형상화
어조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어조	영탄적이고 성찰적인 어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나)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김광섭, 「저녁에」

가락고등학교 (서울)

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3·4(4·4)조의 음수율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는 4음보로 된 정형시이나, (나)는 음보가 일정하지 않은 자유시이다.
- ③ (가)의 '구뵈구뵈 퍼리라'와 (나)의 '다시 만나랴'에서 화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 ④ (가)는 각 장이 2구씩, 총 6구로 된 평시조이며, (나)는 3연으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 ⑤ (가)와 (나)는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 ②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준다.
- ④ 자연물 '춘풍'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원망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통해 입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드러낸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3. 화자의 정서가 (가)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晝夜)에 흐르거든 옛 물이 *있을손가
 인걸(人傑)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는 것은
 *있을손가 : 있겠는가?
- ② 청산(靑山)은 내 뜻이요 녹수(綠水)는 님의 정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 *에어 가는고
 *변할손가 : 변하겠는가?
 *에어 : 흘러
- ③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우음도 아녀고 몬내 도하 흐노라
 *우음 : 웃음
- ④ 한겨울에 베풀 입고 바위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도 썩 적이 없지만
 서산에 해 졌다는 소식에 눈물 나는구나
- 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난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를 설워하나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4. (가)와 (나)에서 대조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찾아 연결한 것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밤 - 허리
- ② 서리서리 - 구뵈구뵈
- ③ 동지(冬至)스들 - 춘풍(春風)
- ④ 기나긴 밤 - 님 오신 날 밤
- ⑤ 밝음 속에 - 어둠 속에

가락고등학교 (서울)

5. (가)에서 <보기>의 ㉓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 한 개의 단어로 쓰시오.

<보기>

(㉓)은/는 순우리말로 된 음성상징어로,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 할 뿐 아니라 동그랗게 마는 모양을 시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게 구체화하여 표현의 묘미를 더하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6. ㉑~㉔을 현대어로 고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동방고등학교 (대전)

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각 행을 네 박자의 호흡에 맞추어 읽는다.
- ② (가)는 정형적인 운율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나)는 대비와 대구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단어가 함축적이고 화자의 정서를 압축하여 보여 준다.

동방고등학교 (대전)

8. (가)는 어떠한 발상으로 주제를 형상화했는지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어떻게		
(기나긴) ①밤을	㉒버혀 내어	→ (이불 속에) 넣었다가	→ 퍼리라

• 발상의 특징

③ 비물질적인 대상을 물질처럼 표현함

• 발상의 효과

④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 냄

⑤ 입에 대한 원망과 이별의 애절함을 강조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나)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동인고등학교 (부산)

9. (가)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형상화하였다.
- ② 동일한 형태소가 반복되는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하게 배열하여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 ④ 비슷한 길이의 유사한 표현을 나란히 배치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⑤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냄으로써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였다.

동인고등학교 (부산)

10. (가)에 나타난 의미의 대립 관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의 존재 여부
- ② 계절의 춥고 따뜻함
- ③ 상황에 따른 상반되는 입장
- ④ 시적 자아와 임
- ⑤ 시간의 길고 짧음

1-(1) 동짓돌 지나긴 밤을

1.②

① (가)에만 해당. ③ (나)의 '다시 만나라'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나타내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지 꼭 다시 만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님. ④ (나)는 현대 자유시인 것이지 연시조가 아님. ⑤ (나)가 자연물과 인간의 대응을 통해 관조적인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응, 헛갈리지 마!◀

음수 vs 음보

ㄱ.음수: 글자 수

ㄴ.음보: 끊어 읽는 호흡의 단위 (단순히 어절의 단위가 아님!)

2.①

② 가정적 상황을 설정은 없음. ③ 상대가 설정된 건 아님. ④ 감정을 이입과 원망의 정서는 없음. ⑤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시에서 말을 건네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기 (★★)

: 말을 건네는 대상(너, 당신 등)이 드러나 있고 이 대상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음) 말을 건네는 방식임.

2. 풍자 vs 해학 vs 언어유희 (★★★)

ㄱ.풍자: 남 혹은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웃으면서 비판 (웃음+비판 목적)

ㄴ.해학: 오직 웃음을 유발할 목적 (웃음 목적)

ㄷ.언어유희: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 (웃음 목적+비판 동반가능)

3.②

▶②도 (가)처럼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함. ① 사람이 늙어 사라져 감을 아쉬워함. ③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④ 임금의 돌아가심을 슬퍼함. ⑤ 지극한 효심.

4.①

② 서리서리 (널다) - 구뿔구뿔 (퍼다)

7.④

▶음성 상징어는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8.⑤

▶임을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임에 대해 원망하는 것은 아님.

9.③

▶의성어는 없음.

10.④

① ⑤ 동지(冬至)스들 지나긴 밤 ↔ 어른 님 오신 날 밤

② 동지(冬至)스들 ↔ 춘풍(春風)

③ 서리서리 너헛다가 ↔ 구뿔구뿔 퍼리라.

11.⑤

▶⑤만이 지극한 효심을 나타내고 나머진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나타냄.

12.①

▶(나)는 성실과 정직과는 상관없음.

13.①

▶서정 갈래 :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목소리로 정서와 감정을 표출하는 문학이다.

14.③

① 평시조임. ② (가)는 4음보, (나)는 자유로운 율격 형성

④ (나)에만 해당. ⑤ (나)에서 과장과 점층은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3음보 vs 4음보

ㄱ.3음보: 주로 하층, 빠름, 동적

ㄴ.4음보: 주로 상층, 느림, 정적

2. 과장법의 종류

ㄱ.확대 과장법- 태양 같은 내 마음

ㄴ.축소 과장법- 내 심장이 쥐꼬리 만해졌다.

3. 점층법 vs 점강법 (★)

ㄱ.점층법: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낮혀 그 뜻을 강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ㄴ.점강법: 내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에 있는 대한민국)

16.④

① ㉠ : 외로운 시간 ② ㉡ :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③ ㉢ : 정든 사람. 사랑하는 임. ⑤ ㉤ : 굽이굽이 퍼리라.

17.⑤

▶㉤ : 친밀한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